

NFPA 창립 90주년

미국 NFP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창립 9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5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연차 총회시 대대적인 자축 행사를 가질 예정이라 한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미 창립 90주년 기념호 Fire Journal 지에 게재될 축하문을 발송한 바 있다.

NFPA가 설립되기 2년 전인 1894년에 “보험업자 시험소”(UL)가 설립되었으므로 당시 보험업계에서는 기존 방재 단체 외에 또 다른 방재 단체를 세운다는 것은 낭비라는 반론이 있었으나, 안전 관계 법규와 기준의 정비, 방재 기술의 전파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시험소만으로 부족하다는 논리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NFPA는 설립을 보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시초부터 일부 보험업자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NFPA는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길을 걸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세계 방재 기관의 대표로 손꼽힐 만큼 NFPA는 권위 있는 단체로 성장하였으며, 이제는 보험업계의 지원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정적으로도 튼튼해졌다. 이와같이 발전을 이룩한 NFPA의 역사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

첫째, NFPA 임직원들은 그들이 방재의 역군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긍지는 NFPA의 연차 총회시마다 강조가 되고 있다.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든 그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에, 우리는 NFPA 임직원들의 남다른 사명감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다.

둘째, 그들에게는 불타는 자립 의지가 있었다. 재원이 부족한 그들은 각 학교의 소화기 실태를 조사하여 방재상 문제점을 사회에 알리고 방재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재정적인 후원자를 찾는 데 노력하였다. 우리에게 이러한 자조·자립 의지가 어느 정도로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 협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열쇠가 되겠다.

셋째, 그들은 그들 업무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였다. 각 기술 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세심한 배려를 하고 영향력 있는 위원을 통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에 노력하였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사회 인식이 부족하면 일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우리 협회에서도 이러한 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NFPA의 성장·발전 과정은 우리들에게 많은 시사를 주고 있다. 창립 10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하여 축하를 보내는 동시에, 그 고난의 역정에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